

선정 · 연신 중학교 아이들이 쓴
우리 가족 이야기



2009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선정 중학교
연신 중학교
우리가 여럿이 모여 함께 쓴 글 모음



은평구립도서관

차례

들어가는 말 :

세상에 하나 뿐인 이야기, 솔직한 글쓰기 - 문성근

하늘이 - 김수진 / 2

병한 우리 가족 - 이고은 / 3

동생 사진 - 심누리 / 4

시험시간 - 이선환 / 6

우리 강아지 - 김경원 / 7

햄스터 - 조수빈 / 8

씨클렌즈 - 유영현 / 9

처음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날 - 구은중 / 10

못된 개/ 에너지 파 - 곡소희 / 11, 12

가족구성원 - 이은선 / 13

우리 아빠 - 조민지 / 14

우리 강아지 - 나현진 / 16

물놀이 - 김형준 / 18

수채비 반죽 - 수야 / 19

일 - 유민지 / 20

어느 날 동생이 울었다 - 김정규 / 22

영과 분꽃 - 양재석 / 24

창난 - 남궁정 / 26

곰 여행 - 이희정 / 27

가족 같은 것 - 김도연 / 28

내 가족 같던 고양이들 아루, 아키 - 류가람 / 30

내 가족 같던 닭요 - 강혜원 / 32

베개와 이불 - 엄지수 / 34

들어가는 말

세상에서 하나 뿐인 이야기, 솔직한 글쓰기

윤성근 (지도강사)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아주 의미 있는 글쓰기 수업을 진행했다. 2009년도 은평구립도서관 사업 중 하나로 기획된 이번 수업은 7월 말 1주일 동안 선정 중학교, 8월 초 1주일 동안 연신 중학교에서 매일 2시간씩 진행 됐다.

주제는 '가족'이다. 가족은 우리와 늘 함께 있는 존재다. 공기 같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다. 손잡이를 돌리면 어김없이 쏟아 지던 수돗물 같은 게 가족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비교 할 수 없다.

십 여 년 전 IMF 위기를 건너면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해체되기 시작했다. 다 같이 살던 가족들이 찢쩍이 흩어지기도 하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죽음으로 인해 영원히 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10대 초반, 한참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있거나 할까?

수업 첫 시간에 아이들과 나는 가족 얘기는 이런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을 내 줬다. 아이들은 가족에 대한 개념을 스스로 굉장히 확대시켜 놓은 상태였다. 객관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보다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

는 그런 존재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그림, 솔직하게 글 써보라' 고 했다. 꾸미지도 말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거나 부끄럽다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글로 써보는 걸 이번 수업 목표로 삼았다.

아이들은 솔직하다. 어른들처럼 가면을 쓰지 않는다. 자기를 숨기지 않는다. 마음속에 있는 순수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된다거나 소통이 어렵다고 한다. 그건 어른들이 아이들처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생각하지 못한다. 아이들은 아직 어른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여기 아이들이 쓴 글을 보며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찮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솔직한 글이 또 없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글은, 솔직한 글이다.

이번 수업에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신 선경중학교, 연신중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글로 감사의 말을 대신한다. 아울러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준 은평구립도서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선정 - 연신 중학교 아이들이 쓴
우리 가족 이야기

하늘이

김수진, 선경중학교 1학년

몇 년 전 어느 날,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작은 새가 길에 떨어져 있었다. 살았나, 죽었나, 확인 하는데 다리를 다친 것 같아서 친구들과 같이 동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 해주었다.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 새가 날아갈 수도 없고 위험할 것 같아서 어디 보금자리를 정해서 같이 키우기로 정했다. 먹이나 치료비는 우리가 모아서 해결하기로 했다.

새를 상자 안에 넣고 놀이터로 가서 이름을 정했다. 그제에 앉아서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어주고 상자 안을 열어보는데, 새가 뛰쳐나가 울타리 사이로 떨어져버렸다. 떨어진 밑을 보았는데 잘 안보였다. 급한 나머지 몇 명은 하늘이를 찾으러 밑에 내려갔는데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찾아서 무덤이라도 지어 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슬펐다. 하루지만 하늘이가 내 가족처럼 느껴졌다.

변한 우리 가족

이교은, 선정중학교 1학년

나는 아빠와 찍은 사진이 그리 많지 않다. 아빠랑 같이 찍어서 우는 것, 소풍 갔다가 찍은 것, 비오는 날 계곡에 간 것, 그 때는 아빠와 정말 친구같이 지냈었는데 이제는 말 몇 마디 하는 것조차 어색하다. 아빤 싫어하는 게 아니다. 다만 어색 할뿐이다.

나랑 오빠는 미 동갑이다. 처음엔 오빠 말에 공감 못하고 일었는데 이젠 오히려 내가 장난을 건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빠와 미 동갑이라고 하면 다 놀란다. 엄마가 왜 이렇게 의엄의엄 날으셨냐고 나한테 묻기도 하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쩔자는 건지…….

오빠와 찍은 사진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마지막이었다. 그중에도 오빠가 갯벌에서 장난치면서 같이 사진 찍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난다.

하늘이, 내 동생과는 여섯 살 차이다.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되니 엄청 까분다. 엄마한테 혼나는 중간에도 말대꾸를 한다.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듯이.

모든 게 옛날과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다.

동생 사진

심누리, 선정중학교 2학년

내가 4학년 때 일이다. 토요일자유학습일이라 할 일도 없고, 현장학습보고서도 적어야 한다고 엄마께 말씀드렸다. 그래서 난 엄마와 동생, 친척, 친구와 친구의 엄마랑 같이 정복궁에 갔다.

거기서 여러 가지 전시물들을 둘러보며 사진도 찍고 놀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동생 사진을 찍을 때 동생이 전시하는 공간 중 한곳을 가리키며,

“엄마! 나 저기 들어가도 돼?” 하고 물어보는 것이다. 그 곳에는 분명히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적혀 있었는데 말이다. 나는 그 글자를 보고 ‘엄마는 안 된다고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로 오히려 엄마는 “한 번 들어가 봐” 하시며 허락을 하셨다.

동생은 그 곳에 들어가서 나무 위에 말 타는 자세로 있더니 태연하게 그런 자세로 사진을 찍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동생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 동생은 정개구리인가봐!’ 하는 생각도 들었다.



시험시간

이선환, 선정중학교 2학년

오래 전 시험기간 때 일이다.
그때는 내가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다.
학원에서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머리가 아파서 집에 와서 조금 쉬었다.
그런데 부모님은 내가 공부를 안 한다고 나를 혼내시는 것이다.
나는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따지면 더 맞을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했다.
시험이 끝나고 성적은 꽤 많이 올라갔다.
그 때 육박은 게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우리 강아지

김경원, 신정중학교 1학년

우리 강아지가 자고 있을 때
배를 꼭 때리고 자는 척을 했다.
실눈을 뜨고 보니
우리 강아지가
나를 쳐다보고
한숨을 쉬었다.

햄스터

조수빈, 선정중학교 1학년

우리집은 햄스터가 꼭 가족 같다. 햄스터는 매우 귀엽다. 수컷 한 마리, 암컷 한 마리. 수컷은 조롱이, 암컷은 조롱이다. 근데 햄스터 집을 못 사서 할 수 없이 넓은 마가지에 햄스터를 넣고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 주었다. 처음에는 걱정했다. 혹시나 햄스터들이 물을 못 먹을까봐. 햄스터들은 다행스럽게 작은 그릇에 있는 물을 먹었다.

어느 날 조롱이가 임신을 하였다. 새끼를 낳았다. 너무 귀여웠다. 나는 인터넷에서 햄스터에 관한 것을 찾아보았다. 햄스터는 임신을 하면 절대 수컷과 같이 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수컷이 새끼들을 잡아먹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햄스터 둘 자리가 없다고 해서 결국 같이 두었다.

다음날 징그러운 광경을 보고야 말았다. 그것은 새끼 햄스터들이 죽어있는 광경이다. 너무 잔인했다. 그래서 수컷을 매우 때렸다. 하지만 그런다고 새끼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휴……, 그래서 그냥 뒀다.

지금 이 햄스터들은 하늘나라에 있다. 1년 전부터 키웠던 것인데 어쨌든 정말 가족 같은 햄스터들이었다.

씨클렌즈

유영현, 선정중학교 1학년

렌즈다.

내가 가는 렌즈 가게에서 이거 사려고 가서 달라고 했는데 만사
천원밖에 없었다.

원래가격은 이만 원이다.

아직씨한테 만사천원에 주변 안 되냐고 하니까, 친하니까 이번
만 만사천원에 준다고 해서 샀다.

그 만큼 소중한다.

처음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날

구은송, 선정중학교 1학년

롯데월드 처음으로 롤러코스터 타는 날
긴장 100배이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롤러코스터가 온다.

부근부근 드디어 출발한다.

기장긴장 드디어 내려가는 곳이 보인다.

내려간다. 오아악, 완전 재미있다.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다.

그렇게 3분 후, 드디어 끝났다.

다시 한 번 타고 싶은 그런 기분.

1년 후, 예버랜드.

아, 학교에서 예버랜드 도착, 나이스.

처음부터 바이킹, 그다음 롤러코스터

이런 날은

한 번 더 타보고 싶다.

못된 개

박소희, 신정중학교 1학년

옛날엔 고무호스가 내 짖이였다.

나는 건너편으로 가려고 못된 개를 고무호스로 때리려고 했다. 그러자 그 개는 고무호스를 물었다. 짖……. 나는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였다. 결국 울음을 터뜨린 나. 할아버지가 달려오셨다. 나는 울고 할아버지는 이 광경을 보시고 웃으셨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혹하다.



에너지 파

곽소희, 선정중학교 1학년

나는 어렸을 때 에너지 파를 즐겼다.
그 때는 진짜 에너지 파가 나갈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
난 어렸을 때 순진했나보다.
아무튼 나는 에너지 파의 1인자다.



에너지 파 : 일본 애니메이션 '프래곤 볼'에서 주인공 손오공이 쓰던 무술. 중국 무협물에 등장하는 '강풍'과 같지만 그 파괴력은 상상할 만큼 세다.

가족구성원

이은신, 신경중학교 2학년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삼촌, 동생, 나, 닭이다.

우선 우리 아빠, 우리 아빠는 현재 어른들 바지를 만드는 공장에 다니신다. 예전에는 내 바지도 만들어 오셨는데 지금은 엄마 옷만 가지고 오신다.

요즘엔 엄마도 일을 하신다. 처음엔 김안일을 했는데 삼촌 공장에 나가신다. 그래서 아빠보다 늦게 들어오실 때도 있다.

나는 엄마를 대신해 엄마, 아빠 방을 청소했다. 물론 대가가 있지만 말이다. 지금은 그 돈을 모으는 중이다. 그래서 열심히 청소를 한다.

좋은 점은 내 방이 깨끗해진다는 것과 돈을 모으는 것, 그야말로 1석 2조다.

우리 아빠

조민지, 선정중학교 1학년



우리 아빠는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신다. 처음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될지 안 될지 걱정이었다. 내가 걱정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내가 태어나기 전 아빠가 직원으로 일하던 세탁소가 있었다고 한다. 그 세탁소는 아빠의 실수로 인하여 화재가 일어나 불타 없어졌다고 한다. 또, 지금 살고 있는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 다른 세탁소 직원으로 일하셨는데 그 세탁소가 부도를 맞았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얼마 후 단골손님이 많이 생겼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 웃을 말리게 되었다.

요즘 들어 아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 몇 달 전에 알게 된 건데 아빠는 노래를 꽤 잘 부르신다. 우연히 노래방에 갔다가 알게 되었다. 어른들이 나보고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시는데 그건 내가 아빠 노래 실력을 닮아서 인가보다.

요즘에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줄곧 실수 한 번 안하시던 아빠가 손님 바지를 망쳐 놓으셨다. 어떻게 된 건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무사히 해결 된 것 같다. 그리고 얼마 전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셨다. 그러게 뭐 하러 술 드시고 바로 운전
을 하는지……. 으이구. 아빠도 할 못 말리신다. 이게 다 술 때
문이다. 술 때문이야!

아빠에 대한 내 소원은 담배와 술! 그 두 가지를 끊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역시 담배와 술을 끊게 만드는 것은
무리인가 보다.

뭐 어쨌든 아빠는 아빠다. 이 세상에서 단 한분 밖에 없는 나
예겐 소중한 분이시다.

우리 강아지

나현진, 선정중학교 3학년

우리 강아지는 정말 재미있다. 내가 6학년 때 우리 집에 왔다. 애기였을 때는 정말 귀여웠다. 지금도 귀엽지만 좀 많이 자랐다. 우리 강아지 이름은 '뽕'이다. 우리 언니가 선물 받아서 데려왔다. 처음에 강아지를 봤을 때 너무 귀여웠다.

다른 집 강아지들은 훈련도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부러웠다. 나도 우리 집 강아지를 훈련시켰다. 근데 의외로 쉽게 내 말을 듣는 것이었다. 손도 주라면 준다. 너무나 신기했다. 지금은 훈련이 잘 돼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언젠가부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짓고 경계한다. 우리 강아지가 내 말은 잘 따른다. 그래도 역시 자기 주인인 언니랑 아빠를 더 좋아한다. 아빠가 일 끝나고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강아지는 짖는다.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벌써부터 멍멍 거린다.

우리 강아지는 말뻥을 잘 피운다. 실심할 때 마다 강아지 집을 열어 놓는다. 그러면 강아지는 온 집안을 휘젓고 돌아다닌다. 놀 강아지 집을 열어 놓으면 실례를 하고 돌아다닌다. 난 강아지가 그럴 때 마다 자주 때린다. 그렇게 때리면 때릴수록 항상 실례한다. 그냥 돌아다닐 때도 실례한다.

우리 강아지는 간식을 너무나 좋아한다. 간식을 먹을 때 마다 달려들고 애교를 부리면서 달라고 그린다. 난 강아지 간식을 자

주 안 사준다. 나 쓰기도 바쁘기 때문이다.

줄 때마다 열심히 훈련시키고 간식을 준다. 우리 강아지는 돌아다닐 때마다 너무 광년(비천년)같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보는 사람도 미쳐가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강아지가 언제나 가족처럼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좋다.

우리 강아지 ♡



물놀이

김형준, 선경중학교 1학년

가족과 휴가를 갔는데 짐을 가지고 방으로 올라가 짐을 놓고 잠
선 다음 물놀이를 하러갔다.

물놀이를 하는데 동생이 물안경을 잃어버렸다. 물안경을 찾으
러 물속을 뛰치고 다녔는데 못 찾아서 결국 근처 가게에서 하나를
샀다. 그런데 언다고 모자를 내 쟁개줬는데 이번엔 모자를 잃어
버렸다. 그 날 동생은 욕을 많이 먹었다.

수제비 반죽

수아, 선정중학교 1학년

엄마가 수제비를 만들려고 반죽을 하고 있는데 반죽을 할 때마다 언니와 나, 정아에게 반죽한 것을 조금씩 물어주었다.

언니와 나는 그 반죽을 합쳐서 케이크나 피자 등등을 만들어서 책상 위에 고이고이 모셔 놓았다. 그리고 수제비를 먹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잊어버려서 청소 할 때마다 한 두 개씩 검게 변해서 나온다.

일

유민지, 선정중학교 3학년

우리 집 식구들은 다들 똑같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들은 안 할 때도 있고요. 엄마랑 이모는 매일 하고 나랑 동생 세 명은 일을 도우며 돈을 벌어요.

일이 많이 올 때 한 명이라도 빠져서 그만두면 모두가 힘이 듭니다. 침대도 있고 옷장도 있고 서랍도 있는 방에서 여섯 명이 모여앉아 일을 해요. 자리 때문에 싸울 때도 많고요.

아빠들은 돕는다고 하면 참 잘 도와요. 투정이 심하지 않아서요. 우리 네 명 아이들은 어릴 땐 열심히 하고 또 어릴 땐 다 짜증을 내지요.

짜증을 내다가 돈을 계산하게 되면 또 다시 입에선 웃음꽃이 활짝! 엄마 일을 돕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일은 힘들다'입니다.

શ્રી યજ્ઞ (પાઠ ૨૧)



어느 날 동생이 울었다

김정규, 선정중학교 1학년

동생은 어느 때와 같이 방문 앞에 있는 서랍장에서 놀았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거기서 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사과를 가져와서 깎기 시작했다. 그때 번뜩 하더니 동생이 포크 두 개를 가져왔다. 그래서 엄마와 나는 정관을 하였다.

그 때 동생이 사과 한쪽을 먹고 신이 났는지 숨을 추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한 30초 동안 울다가 뭔가 생각 난 듯 거실로 나가더니 내 자전거 헬멧을 쓰고 왔다. 그러나 그런 안 좋은 추억을 갖고도 아주 잘 놀았다.



명과 분꽃

양재식, 선정중학교

우리 외할머니는 10년 전부터 우리 집에서 사신다. 며칠 전 일이다. 할머니랑 나랑 오고 있는데 할머니가 분꽃을 따시려다 넘어져셨다. 거의 2미터 정도 쓰셨다. 눈 주위에 멍이 생겼고 이제는 꽃을 따시는 따지 않겠다고 마음먹으셨다. 하지만 그 결심은 며칠 가지 않았다.

우리 아빠는 멍을 계란으로 문질러야 한다고 하셨지만 할머니는 됐다고 하면서 아빠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할머니의 멍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꾸만 세력을 확장시켜 지금은 오른쪽 눈에서 꽃잔등을 거쳐 왼쪽 눈으로 가는 현재진행형이다. 할머니는 너무 리갈이 되었다. 진짜로 우리 할머니는 너무 너무 너무 귀엽다.



장난

남궁정, 선정중학교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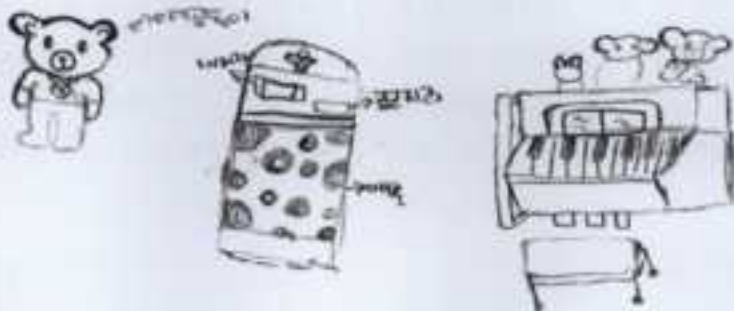
엄마가 자고 있는 동안,
언니의 칠교를 종이 위에 본드로 붙여 못쓰게 했다.
엄마가 자고 있을 때,
공놀이를 하다가
엄마 얼굴에 정통으로 공을 튀겼다.

곰 인형

이희정, 연신중학교 3학년

1년 365일 같이 지내는 곰군. 곰군이랑 어언 16년째 같이 지냈네. 아 좋아. 근데 자주 보면 분수족 귀여운 곰돌이. 그래서 내가 지은 곰돌이 이름은 '아기 곰돌이'다. 자주 자주 같이 지내서 그런지 잠잘 때 곰돌이가 없으면 잠이 안 온다. 곰돌이는 영원한 내 남자친구다. 하루라도 내방에 없으면 엄청 허전하다. 우리 아기 곰돌이. 어쩔 때는 우리가족이 내 아기 곰돌이를 너무 좋아한다. 내 건네. 나만 우리 곰돌이를 좋아할 건데.

며칠 전 곰돌이가 없어졌다. 옥, 죽을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곰돌이가 더러워졌으니 한다고 하셨다. 안 돼. 안 돼. 나는 곰돌이 그 상태 그대로가 좋은데. 그래도 곰돌이랑 16년 동안 같이 지내서 너무 행복하다. 우리 아기 곰은 영원하라!



가족 같은 것

김도연, 연신중학교 1학년

저에게는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한테 무척 소중한 기억에 남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존재, 그것들은 바로 만화와 책입니다. 이렇게 느껴지게 된 것은 제 기억의 시작점이 바로 이것들이어서 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절 남자마자 일을 그만두신 엄마는 집안 일이나 갖가지 일에 적응하기 위해 저랑 언니를 어린이집에 자주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거기서 만화와 책을 보면서 시간을 거의 다 보냈는데 아마 그 때부터일 겁니다.

유치원에 가셔도 그런 마찬가지로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매일 TV로 만화를 보았고, 책을 잔뜩 사준 엄마와 책을 좋아하는 아빠 덕에 책을 자주 읽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사교성이 없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제가 책만 읽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14년 동안 같이 있게 되었고 지금은 가족만큼 그 시간이 편안합니다. 그러니 전 가족은 편안한 곳, 제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 같은 고양이들 아루, 아키

류가람, 연신중학교 3학년

2학년 겨울에 친구엄마 소개로 동물병원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데려왔다. 그 때 같이 있던 다른 친구가 한 바리를 가져간다고 해서 줬는데 결국 다음날 아침, 친구 엄마가 고양이 키우는 걸 허락해주지 않으셔서 우리 집으로 다시 데려왔다.

고양이 두 마리 중 한 바리는 삼색고양이다. 그 고양이 이름은 일본어로 '가을'인 '아키'다. 털색이 주황색, 갈색 등 가을을 떠올리는 색이기 때문이다. 다른 고양이는 회색 털에 흰색이 섞여 있어 순해 보이는 고양이, 이름은 '아루'다.

아루는 생긴 대로 성격이 순한 편이고, 아키는 암컷인데 사나운 편이다. 예를 들면 아루는 집에 잘 있고, 나가도 대문 앞에 햇빛 있는 곳까지만 나가는데 아키는 좀 더 멀리 나가는 편이다.

그래도 나가면 일찍 들어왔는데 언젠가 한번 1시 정도에 나가더니 7시에 들어왔다. 찾을 방법도 없었고 그렇게 늦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걱정을 많이 했다. 아키가 들어 올 때는 걱정을 더 했다. 어디서 뭘 어렸는지 별별 떨면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며칠 지난 후엔 괜찮아졌지만…….

여름 즈음에 고양이를 삼촌덕으로 데려갈 때는 정이 너무 들어서 나와 동생은 굉장히 슬펐다. 심지어 동생은 울기까지 했다. 그 후 며칠정도 계속 생각이 나서 슬펐지만, 지금은 잘 지내나, 하고 슬프기 보단 오히려 걱정이 된다.



ARU



AKI

내 가족 같았던 담요

강혜원, 연신중학교 3학년

내가 어렸을 때 매일 덮었던 담요가 있다. 어렸을 때부터 밀어서 그런지 굉장히 낡았다. 이 담요는 어릴 때 내 단짝 친구나 마찬가지로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혜원아, 이거 너무 낡았으니까 버리자.” 라고 하시면 얼른 안 보이는 데로 깊숙이 숨긴 다음에 엄마가 물어볼까봐, 빨리 밖으로 나가서 시간이 늦어 질 때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면 엄마가 물어볼까봐 무서워서 이리저리 저리저리 못했던 기억이 난다.

초등학교 3학년. 이제는 내 분신이나 마찬가지로인 내 담요. 어딜 가든지 갖고 다닌다. 여름에 엄마가 화내면서, 더워죽겠는데 왜 담요를 끌고 다니느냐고 물어보시면 나는 당당하게, “따뜻하잖아!” 이었던 기억이 난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담요를 끌고 다니며 먼지를 끌고 다니고 있다.

오후에는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와서 씻고 밥을 먹고 자려는데 뭔가 허전했다. 그리고 엄마에게 “내 담요 어디 있어?”

그 때 엄마가 한 말을 듣고 나는 아마도 울었던 것 같다. 오랫동안 내 옆에 있어서 그런지 엄마 말로는 서럽게 울었다고 하셨다.



베개와 이불

엄지수, 연신중학교 3학년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정의는 가장 오래 보는 사람,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베고 자는 베개와 이불 또한 내 가족이라 생각한다.

한번은 언니가 내 베개를 자기 것이라 우긴 적이 있다. 얼마가 베개 커버를 뺐다고 커버를 벗긴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다른 커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커버를 덮지 않은 채로 놔둔 게 원인이다. 언니가 자기 것이 없어졌는데 내가 안고 있던 게 자기 거라며 우기는 바람에 대판 싸우다가 결국 되찾게 되었다. 그 때 이후로 내 거에 대한 집착이란 게 생겼다.

이불에 대한 이야기는 동생과 얽혀있다. 내 동생은 잠잘 때가 되면 나를 괴롭힌다. 괴롭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이불을 빼앗아 간다. 그럴 난 화나서 동생한테 손찌검을 한다. 하필 그 때에 엄마가 나타나고 나의 취침시간은 한 시간 후로 미뤄진다.

하지만 10분도 채 안 돼서 이불을 되찾아 다 같이 TV를 보다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사건을 겪은 내 베개와 이불 또한 나의 가족이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은평구립도서관

서울시 은평구 번영2길 30

전화 (02) 385-1671-4

팩스 (02) 352-2944

<http://www.eplib.or.kr>